

주간 통일정세

2016-31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7.30	北김정은, 軍 어구종합공장 시찰...당 과업 무조건 집행해야(연합뉴스)
		北실세 최룡해, 리우올림픽 참석...평양출발·베이징 경유(연합뉴스)
		北리용호, ARF 회의 마치고 베이징 통해 귀국(연합뉴스)
		北, 처녀 어부로만 구성된 어선 소개...거센바다 정복자들(연합뉴스)
	7.31	北실세 최룡해, 리우올림픽 참석...평양출발·베이징 경유(연합뉴스)
		北, 개성시 한복판에도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립중(연합뉴스)
	8.1	北, 참신한 청춘영화 제작 독려...선군사상 탈피 움직임(연합뉴스)
		<올림픽> '북한이 달라졌다' 선수촌에 대형 인공기(연합뉴스)
	8.2	<올림픽> 北 리중무 체육상, 리우올림픽 참가차 출국(연합뉴스)
	8.3	北매체 "고강도 제재에도 려명거리 건설 기적" 자화자찬(연합뉴스)
8.4	김정은 '오중흥대회' 참석...미사일 발사는 참관 안 한듯(연합뉴스)	
	최룡해 北 노동당 부위원장 리우 도착...스포츠외교 돌입(연합뉴스)	
	北TV, 평양상공 관광상품 소개...18세 여성이 비행기 조종(연합뉴스)	
8.5	대북소식통, 北 해군사령관 김명식으로 교체 가능성(연합뉴스)	
	'200일 전투' 北 광부들, 붕괴 직전 갱도까지 진입(연합뉴스) <올림픽> 北 축구발전계획 수립...대의 이미지 개선 의도(연합뉴스)	
경제	7.30	北에 50달러 위조지폐 유통...中무역상 경계령(연합뉴스)
		北, 올해 상반기 유엔 비제재대상 지하자원 대중수출 급증(연합뉴스)
	8.1	북한 유일 범무법인 업무 중단...대북제재 여파(연합뉴스)
	8.2	북중교역 인프라 中훈춘~北원정리 연결 신두만강대교 완공 눈앞(연합뉴스)
		신의주-단둥 연결 철교 보수공사 마치고 열흘 만에 재개통(연합뉴스)
	8.3	북한군, 식량 수산물 생산 증대에 무리하게 동원돼(연합뉴스)
		몽골, '편의치적' 北선박 14척 등록취소...개별국 첫 사례(연합뉴스)
		美전문가 "안보리 제재, 北경제 허약해 아직 영향 거의 없어"(연합뉴스)
	8.4	北, 함경남도에 수력발전소 완공...전력문제 해결 이바지(연합뉴스)
		北 경제제재 국면서 '특수경제지대' 개발 시도...실효성 있나(연합뉴스)
유럽 대북투자단, 평양서 5일간 투자 가능성 점검(연합뉴스)		
北, 인력수출 제동 걸리자 브로커에 알선료까지 지급(연합뉴스)		

사회 문화		中 단둥 일대 철도 인프라 개선사업에 9천600억 원 투입(연합뉴스)
	7.31	북한 학생들 국·영·수 주요과목 남한보다 공부 더 많이한다(연합뉴스)
	8.1	北 해외과건 요원들, 삼성·LG 스마트폰 몰래 사용(연합뉴스)
	8.2	北 경제감찰에 돈주들 몰락하고 주민 탈북 늘어나(연합뉴스)
		북한군, 보급난에 범죄 기승·주민 피해 심각(연합뉴스)
		평양도 무더위에 맥줏집 '북적'...경흥관맥주집 초만원(연합뉴스)
	8.3	北 평양에도 교통단속 CCTV 등장·주민감시 악용 소지(연합뉴스)
北 간부·부자들 사이 한국 소주 참이슬 인기(연합뉴스)		
8.5	北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지곡으로 지정(연합뉴스)	
	北 평성·순천서 한국 공중파 수신·특권층 몰래 시청(연합뉴스)	
	북한도 무더위에 물놀이장·야외수영장 '인산인해'(연합뉴스)	
외교 국방	7.31	정전협정 체결일 맞아 中 군부 축하단 북한 방문(연합뉴스)
		[단독]싱가포르도 대북제재...10월부터 비자면제국서 북한 제외(연합뉴스)
	8.1	美 핵폭격기 'B-1B' 이달 초 괌 배치...대북 군사적 압박(연합뉴스)
		北 "美 세계 비핵화 원한다면 대북 정책 바꿔야"(연합뉴스)
		北, 미군 주괴터프로젝트는 세균전 준비 책동 주장(연합뉴스)
		北, 사이버테러 위협 수준은...안보 차원 공격에 금전취득까지(연합뉴스)
	8.2	北외교관, 뉴욕채널 차단 해놓고 "통로 없어 위험한 상황"(연합뉴스)
		캐나다, 북한 여행회피국으로 재지정(연합뉴스)
		日 "北, 핵탄두 중량 1t으로 줄이면 美본토 사정권 가능성"(연합뉴스)
	8.3	中언론, 北미사일 발사 비난 동시에 "사드배치 항의"로 해석(연합뉴스)
		日 아베, 北미사일 발사 정보수집·경계태세 만전 기하리(연합뉴스)
		北미사일 한미일 동맹 견제했나...日, EEZ 파편 회수해 분석예정(연합뉴스)
		대북제재보고서 41개국 제출...2013년보다 23개국 늘어(연합뉴스)
		파워 유엔 주제 美대사, 안보리 긴급회의 요청할 것(연합뉴스)
		日방위상, 北미사일 사상 처음 日 EEZ에 낙하한 듯...1천km 날아(연합뉴스)
		美전략사령부, 북 미사일 2발 탐지...1발은 발사 직후 폭발(연합뉴스)
		러 전문가 "北, 노동미사일 탑재 핵탄두 아직 개발 못 해"(연합뉴스)
북한, 더 많은 위성 발사할 것...10년 내에 달 탐사도(연합뉴스)		
8.4	美정부-의회, 北미사일 규탄...가드너, 추가 군사옵션 모색해야(연합뉴스)	
	백악관, 대북 추가제재 압박 강화...중·러와도 긴밀 협력(연합뉴스)	
	중국, 北미사일 발사 비난 없이 "모든 당사자 진정해야"(연합뉴스)	
	러 외교부, 내달 극동 동방경제포럼에 北 대표단도 참석(연합뉴스)	
	北, 파리기후협정 가입...유엔에 가입문건 제출(연합뉴스)	

8.5	안보리 北미사일 발사 긴급회의…한·미·일 강력 규탄(연합뉴스)
	유럽 각국, 北 미사일 발사에 “국제적 의무 명백한 위반”(연합뉴스)
	반기문 “北 진지한 대화로 복귀해야”…안보리 긴급회의(연합뉴스)
	방글라데시 北대사관, 삼성TV·에어컨까지 밀수하다 적발(연합뉴스)
	中, 매체에 北지도자 조롱 누리꾼 통제강화 지시(연합뉴스)
	일본, 북한 미사일·남중국해 갈등 계기로 방공망 확충 본격화(연합뉴스)
	北, 러시아에 원산-블라디보스토크 여객선 취항 제안(연합뉴스)
	<올림픽> 반기문, 리우에서 최룡해와 개별 접촉 계획 없다(연합뉴스)
	몰타, 북한 비자 규제 공식 확인…현금 유입 막고 인권보호 목적(미국의소리)
	교도, 北상주 유엔기구들 대북금융제재로 업무 곤란(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7. 30.

■ 北김정은, 軍 어구종합공장 시찰...당 과업 무조건 집행해야(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북한군 어구종합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양시 인근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구종합공장은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흠잡을 데가 없는 만점짜리 공장”이라면서 “당에서 준 과업은 오직 즉시 접수하고 무조건 집행할 의무밖에 없다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함.
- 이번 현지지도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이 동행함.

2016. 8. 4.

■ 김정은 ‘오중흡대회’ 참석...미사일 발사는 참관 안 한듯(연합뉴스)

- 북한군은 ‘오중흡7연대 칭호 쟁취운동 열성자대회’를 10년 만에 개최함.
- 이번 제3차 대회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 열렸으며, 군대 사기진작과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개최된 것으로 분석됨.
-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겸 차수, 리명수 군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군 수뇌부가 주석단에 앉았고, 황병서가 행사 보고를 함.
-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오중흡7연대 쟁취운동은 사상무장투쟁과 연결되어 있다”면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이 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군의 과잉 충성으로 도발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회 소집 의도를 정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말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7. 30.

■ 北실세 최룡해, 리우올림픽 참석...평양출발 베이징 경유(연합뉴스)

-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이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최 부위원장은 북한 고려항공(JS) 151편으로 이날 오전 10시(이하 현지시간)께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됨. 리우 올림픽 개막식이 5일(현지시각)인 점을 감안하면 최룡해는 베이징에 하루 이틀 머물다 제3국을 거쳐 브라질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내달 6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리우 하계올림픽에 레슬링, 유도, 역도, 탁구, 마라톤 등 9개 종목에 출전할 선수 30명 정도를 파견함.

■ **北리용호, ARF 회의 마치고 베이징 통해 귀국(연합뉴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일정을 마치고 30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경유해 귀국함.
- 목격자들에 따르면 리 외무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 일행은 주중 북한대사관이 마련한 차량편으로 이날 정오께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한 뒤 별다른 말없이 제2터미널 귀빈실을 통해 출국장으로 들어감.
- 리 외무상은 회의 기간 동안 별도로 기자회견도 열었으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북핵 문제의 책임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돌리는 등 기존 태도를 반복함.

2016. 8. 2.

■ **<올림픽> 北 리종무 체육상, 리우올림픽 참가차 출국(연합뉴스)**

- 리종무(67) 체육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리 체육상은 현재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임.
- 리종무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체육 열풍'을 주도해온 인물임. 2012~2014년 체육상을 역임한 뒤 후임인 김영훈에게 바통을 넘겼으나 리우올림픽을 앞둔 올해 초 체육상에 복귀함.

2016. 8. 4.

■ **최룡해 北 노동당 부위원장 리우 도착...스포츠외교 돌입(연합뉴스)**

-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 개회식 참석차 4일(현지시간)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항에 도착함.
- 최룡해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평양을 출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함. 이후 쿠바를 거쳐 이날 상파울루 공항을 통해 브라질에 입국했다.
 - 최룡해 부위원장은 숙소인 시내 W 호텔로 이동한 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과 만찬을 함께 할 예정임. 5일에는 올림픽 개회식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임.

2016. 8. 5.

■ **대북소식통, 北 해군사령관 김명식으로 교체 가능성(연합뉴스)**

- 김명식 전 북한군 해군사령관이 '전승절(7·27) 중앙보고대회'와 '오중흡대회' 등 북한 지도부가 참석한 주요 행사에서 연이어 해군사령관 자리를 차지해 주목됨.
-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5일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해군사령관이 리용주에서 김명식으로 교체됐을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군 수뇌부가 총출동한 오중흡대회에 참석하지 않아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의 수장을 더는 맡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짐.

다. 공식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7. 31.

■ **北실세 최룡해, 리우올림픽 참석...평양출발·베이징 경유(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31일 현재 건설 중인 평양 려명거리의 70층짜리 아파트 골조공사를 약 두 달 보름 만에 끝냈다고 선전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인민군 김형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려명거리 건설장적으로 제일 높은 70층 살림집(주택) 골조공사를 불과 74일 만에 완성하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보도함.
- 려명거리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로 지난 4월 착공됨. 40여 동의 아파트와 60여 동의 공공건물이 건설되며, 아파트는 35층과 40층, 50층, 55층, 70층짜리 등이 들어섬. 이 가운데 50층과 55층 아파트의 골조공사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마무리됨.

■ **北, 개성시 한복판에도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립중(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시 한복판에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RFA에 출연, 북한 노동자가 투입된 공사 현장의 모습이 담긴 지난 3월 8일 당시 위성사진을 공개함.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집권 이후 이미 전국에 걸쳐 250개 이상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새로 만들. 최근에는 평양 국방종합대학과 김일성·김정일 박물관, 함경북도 청진시 등지에 동상이 들어섬.

2016. 8. 1.

■ **北, 참신한 청춘영화 제작 독려…선군사상 탈피 움직임(연합뉴스)**

- 북한이 참신한 청춘영화 제작을 독려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김정일 시대의 ‘선군(先軍·군 우선) 사상’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1일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발행하는 월간 잡지 ‘조선예술’ 최근호(2016년 제6호)는 ‘청년들은 새 영화를 기다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차지하는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명작을 창작하는 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고 밝힘.
-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는 “얼마 전부터 북한의 문화예술이 형식과 내용 모두 정치적 색깔은 옅어지고 톤이 부드러워졌다”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김정일 시대의 선군 사상에서 벗어나려는 김정은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올림픽> ‘북한이 달라졌다’ 선수촌에 대형 인공기(연합뉴스)**

- 1일 오전(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서쪽의 바라 다 티주카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에 눈에 익은 국기가 보임. 아파트 형태로 이뤄진 선수촌 외벽 3개 층을 뒤덮는 대형 북한 인공기가 세로로 걸려 있었음. 지난달 28일 입국한 북한 선수들이 머무는 곳임을 한눈에 알려주는 상징물임.
- 그동안 북한은 올림픽 선수촌 숙소에 인공기를 내걸기는 했으나 이번 대회처럼 대형 인공기를 내건 것은 처음임. 북한 선수들의 태도도 괄목상대할 정도임. 역대 올림픽에서 한국 취재진과 눈인사조차 나누길 꺼렸으나 이번에는 확연히 달라짐. 한국 선수는 물론 외국인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장면이 수시로 보임.

- 북한이 리우 올림픽을 통해 폐쇄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정을 낱게 하는 대목임. 잇따른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고립된 국면을 벗어 나려는 의도적인 행보로 판단됨. 북한은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레슬링·유도·역도·탁구·마라톤 등 9개 종목에 3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함.

2016. 8. 5.

■ ‘200일 전투’ 北 광부들, 붕괴 직전 갱도까지 진입(연합뉴스)

- ‘200일 전투’에 동원된 북한 광부들이 목표 생산량을 채우고자 붕괴 직전의 갱도에 들어가 석탄을 캐는 것으로 나타남.
- 갱도 붕괴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한 다음 충분한 보강 조치를 취한 이후 작업을 해야 하지만, 북한 탄광기업소는 생산량을 채우는 데 더 급급한 모습임.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기어이 돌파하자 증산목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안남도의 월봉탄광 ‘회둔갱’ 광부들의 작업 실태를 상세히 보도함.
- 신문은 “갱의 일꾼(일꾼)들이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 남 먼저 어깨를 들이밀며 혁신의 앞장에 선다”며 “이들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헌신의 구슬땀으로 석탄생산량은 연초보다 5배 이상으로 장성(성장)했고, 200일 전투에서 높이 세운 일 전투 목표도 110% 이상 넘쳐 수행하고 있다”고 전함.

■ <올림픽> 北 축구발전계획 수립...대외 이미지 개선 의도(연합뉴스)

- 북한이 2020년 도쿄(東京) 하계올림픽대회를 목표로 축구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축구 외교’를 통해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4일 “조선축구협회가 2020년에 열리게 될 제32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목표로 한 축구발전계획을 작성하였다”면서 “교수훈련의 과학화,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경기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 그리고 여러 나라 축구협회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적극 벌려(벌여) 나가도록 한다”고 밝힘.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선축구협회 위원장을 역임한 최룡해가 브라질 올림픽에 가서 스포츠외교를 펼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장벽 없는 축구 교류를 통해 대외이미지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망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7. 30.

■ 北, 처녀 어부로만 구성된 어선 소개...거센바다 정복자들(연합뉴스)

- 전 주민들을 ‘200일 전투’에 내몬 북한이 처녀 어부들로만 구성된 어선의 활약상을 소개하며 체제선전에 나섬.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우리도 황금해의 주인들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포시 수산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조선노동당의 딸-청년 여성영웅호’라는 어선을 소개함.
- 이 어선은 선원들이 모두 처녀로 구성되어 있다고 신문은 전함. 남자들도 하기 힘든 뱃일을 처녀들이 한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은 일임. 북한 당국이 ‘200일 전투’에서 수산분야의 성과를 내고자 처녀들까지 어로작업에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2016. 8. 3.

■ 北매체 “고강도 제재에도 려명거리 건설 기적” 자화자찬(연합뉴스)

- 북한은 대북제재에도 평양 려명거리 건설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자화자찬함.
-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3일 ‘고강도 대북제재와 려명거리 건설장의 기적’이라는 글에서 “려명거리 건설장에서 제일 높은 70층 살림집 골조공사가 불과 74일 만에 완성되는 눈부신 기적이 창조됐다”며 “이는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피눈(독살스러운 눈)이 되어 날뛰는 원쑤(원수)들의 머리 위에 징벌의 불소나기를 들썩울 또 하나의 위력한 미사일마냥 그지없이 장하고 긍지스럽다”고 주장함.
- 이는 대북제재로 흐트러진 민심을 다독이고 북한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2016. 8. 4.

■ 北TV, 평양상공 관광상품 소개...18세 여성이 비행기 조종(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새로 조성한 항공관광시설을 이용해 평양 상공 관광에 나서는 주민들의 모습을 내보내면서 체제 선전에 나섬.
- 북한 조선중앙TV는 3일 ‘미림항공구락부(클럽) - 날으자 하늘길로’라는 제목의

12분짜리 방송 영상에서 “미림항공구락부를 찾는 손님들과 함께 즐거운 관광비행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다”며 이 시설을 상세히 소개함.

- 북한이 이러한 방송을 내보낸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2016. 8. 3.

■ 북한군, 식량 수산물 생산 증대에 무리하게 동원돼(연합뉴스)

- 북한 군대가 농산물과 수산물 생산량 증대 사업에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펠빈 연구원은 RFA에 출연, 지난 6월 4일 촬영된 인민군 ‘6월8일농장’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김정은이 이곳을 시찰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규모가 커졌다”고 말함.
-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大阪)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 대표는 “군 산하 수산사업소가 어로 작업에 경험이 없는 군인을 동원하면서 조난 사고에 따른 적지 않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2016. 8. 4.

■ 北, 함경남도 수력발전소 완공…전력문제 해결 이바지(연합뉴스)

- 북한이 함경남도 금야강에 위치한 대규모 수력발전소인 ‘금야강군민발전소’를 완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대규모의 금야강군민발전소가 조선의 동해지구에 훌륭히 일떠섰다”면서 “조업식이 3일 진행됐다”고 밝힘.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5월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하면서 전력문제 해결에 특히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다. 경제 상황

2016. 8. 4.

■ 北 경제제재 국면서 '특수경제지대' 개발 시도...실효성 있나(연합뉴스)

- 북한이 경제개발구를 비롯한 '특수경제지대' 개발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경제교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북한 대외선전용 사이트인 '내나라'는 4일 "특수경제지대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는 유능한 지대개발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므로 공화국 정부는 이 분야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교육제도를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에 전문가가 부족하고 투자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지 못해 특수경제지대 개발 성과가 작았던 측면이 있다"며 "당 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지만, 제재 국면에 투자 유치가 어렵다 보니 굉장히 과감한 조치를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이어 "북한이 법률적·제도적 조치들을 내놓아도 제재 국면인 데다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어 개발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중국이 경제 협력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북한도 이를 돌파구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함.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7. 30.

■ 北에 50달러 위조지폐 유통...中무역상 경계령(연합뉴스)

- 북한에서 유통되는 50달러 가운데 위조지폐가 많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무역업자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중국의 대북무역상은 RFA에 "북한에서 대금 결제를 대부분 미화로 하는데, 중국 대방(무역업자)들은 조선(북한)에서 넘어오는 달러에 위폐가 없는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북한 대방들은 물건 대금으로 부피가 큰 중국 위안화보다 부피가 작은 달러로 결제하고 있다"고 밝힘.
- 함경북도 나선시를 왕래하는 다른 중국 무역업자는 "북한 내부에서도 50달러짜리는 위폐가 많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폐들이 국가무역기관을 통해 외부로 나올 수 있다"고 말함.

■ **北, 올해 상반기 유엔 비제재대상 지하자원 대중수출 급증(연합뉴스)**

- 올해 상반기 들어 북한이 아연피 등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자원을 중국에 수출한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 북한자원연구소(소장 최경수)는 30일 ‘2015년 북한 주요 지하자원 생산량 추정과 2016년 상반기 북중 지하자원 교역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중국에 유엔 제재대상 품목 외에도 마그네시아, 아연피 등 다양한 지하자원을 수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비(非) 제재대상 품목 중에서 중국 수출이 많은 연광, 아연광, 아연피, 마그네시아, 동광 등 5개 품목의 2016년 상반기 수출액은 7천821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5천205만 달러보다 50.3% 증가함.
- 최경수 소장은 “2분기 통계만으로 중국이 유엔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 내 시장수요의 감소도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2016. 8. 1.

■ **북한 유일 법무법인 업무 중단…대북제재 여파(연합뉴스)**

- 북한 최초이자 유일의 법률회사인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HAY, KALB & ASSOCIATES)가 업무를 중단한다고 1일 밝힘.
- 평양에서 외국기업의 대북투자를 주선하고 있는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의 마이클 헤이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업적, 지정학적 요인”에 근거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함.
- 북한 당국과의 합자 형태로 12년간 법인을 운영해온 영국-프랑스 시민권자 헤이 대표는 “이번 결정은 길고 철저한 숙고와 한반도 관련 지역 간 지속적인 관계 악화에 대한 검토 끝에 이뤄졌다”고 덧붙임.

2016. 8. 2.

■ **북중교역 인프라 中훈춘~北원정리 연결 신두만강대교 완공 눈앞(연합뉴스)**

- 북중교역의 새로운 인프라 역할을 맡게 될 신두만강대교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중국길림망(中國吉林網)이 2일 보도함.
- 이 매체는 신두만강대교 건설공사가 90%의 공정율을 보이며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함.
-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와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 원정

리를 연결하는 신두만강대교는 정식 명칭이 ‘중조(中朝) 변경 취안허(圈河)통상 구 대교’로 북한 나선경제특구로 이어지는 주요 접점임.

■ 신의주-단둥 연결 철교 보수공사 마치고 열흘 만에 재개통(연합뉴스)

- 지난달부터 보수공사에 들어갔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丹東) 간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가 열흘 만에 개통됐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2일 보도함.
- 중국 단둥의 대북소식통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중간 무역거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단둥-신의주 압록강철교 도로 부분의 파손이 발견돼 양국은 10일 동안(7월 23일~8월 1일) 세관 업무를 중지하고 보수공사를 했다”면서 “(공사를 마치고 2일) 현재 압록강철교 도로를 통해 물품을 실은 트럭들이 북한으로 건너 가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보수공사가 완료됐다고 하지만 북측(구간)에서 했다는 점에서 날림 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10일 동안이나 물자운송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운송량을 대폭 늘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적 차량으로 인한 교량) 도로 파손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측이 지난해 보수공사를 진행한 구간에서 차도의 아스팔트 표면이 일부 녹아내리고 깨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짐.

2016. 8. 3.

■ 몽골, ‘편의치적’ 北선박 14척 등록취소…개별국 첫 사례(연합뉴스)

- 몽골이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함.
- VOA는 “몽골 정부가 자국 선적 등록을 취소한 북한 선박은 총 14척”이라며 “몽골이 지난달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도로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이들 선박의 등록이 취소되고, 계약도 종료됐다고 밝혔다”고 전함.
- 몽골은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총액이 82만4천 달러(약 9억1천200만원)이며, 주로 약품과 식품이라 북한의 불법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힘.

■ **美전문가 “안보리 제재, 北경제 허약해 아직 영향 거의 없어”(연합뉴스)**

-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가 시행됐으나, 북한 경제의 체질이 워낙 허약한 탓에 아직은 별다른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이 나옴.
- 미국 국가정보국(NSA) 동아시아 국가정보조정관 선임보좌관을 지낸 조지타운 대학 윌리엄 브라운 객원교수는 2일(현지시간) 펴낸 대북 무역 관련 보고서에서 “올해 2.4분기 북한과 중국 간 무역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로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높아졌지만, 아직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함.
- 브라운 교수는 “중국 외에 인도,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의 대북 무역량도 크게 축소됐다”면서 “북한의 경제가 이미 허약한 상황이어서 새 대북제재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라고 말함.

2016. 8. 4.

■ **유럽 대북투자단, 평양서 5일간 투자 가능성 점검(연합뉴스)**

- 북한 내 유일한 외국 법률회사가 영업중단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유럽의 대북투자자문회사가 이번 달 방북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 네덜란드 투자자문회사 GPI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는 RFA에 이달 말 유럽의 대북투자 희망자들과 함께 방북할 계획이라며 “북한 당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어떤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지 돌아볼 계획”이라고 밝힘.
- GPI의 방북계획서를 보면, 유럽 투자자들은 평양에 도착하기 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대북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북한에서 사업하기(Doing Business in North Korea)’ 설명회에 참가하고, 평양에서 4박 5일 일정으로 대북투자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임.

■ **北, 인력수출 제동 걸리자 브로커에 알선료까지 지급(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인력수출에 제동이 걸리자 브로커에게 알선료까지 지급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RFA에 “북한이 중국에 지인이 있는 공직자들을 중국에 보내 노동인력 수출을 알선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줄 기업을 찾아 알선해 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말함.
-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인력수출을 성사시켜준 후 2~3개월가량은 약속대로

알선료를 지급하다가 그 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흐지부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 **中 단둥 일대 철도 인프라 개선사업에 9천600억 원 투입(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북중접경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일대의 철도 인프라 개선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물류기능 강화에 나섬.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 신의주와 접경한 단둥 지역의 물류기능 강화는 향후 북한과 교역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접경지역의 한 관측통은 “압록강대교를 오가는 열차를 통해 북중교역 상당량이 이뤄지는 만큼 단둥~선양 간 철도 개선사업이 끝나면 양국 교역량도 증대될 것”이라며 “중국 당국이 이런 점까지 고려해 공사를 기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8. 3.

■ **北 평양에도 교통단속 CCTV 등장·주민감시 악용 소지(연합뉴스)**

- 최근 평양 시내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도심 곳곳에 교통단속용 CCTV가 설치돼 작동 중이라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3일 보도함.
- 데일리NK는 지난달 초 북한을 방문했던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제보 받은 평양도심의 사진들을 게재하면서 “평양 중심가에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차가 오가고 있다. 도시 곳곳에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모습도 눈에 띈다”고 전함.
- 이어 “이 카메라가 단속하는 건 비단 과속 자동차만이 아닌 듯하다”고 전제한 뒤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 당국은 평양 전역에 교통단속 카메라를 포함한 CCTV를 설치하고 북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 8. 5.

■ **北,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지곡으로 지정(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금지곡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중양에서 얼마 전 주민들에게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금지곡으로 선포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이 노래는 김 일성시대부터 한민족의 통일 의지를 담은 대중가요였고, 김정일 시기에도 통했던 노래였는데 김정은이 집권한 후 (최근에) 금지됐다”고 설명함.
 -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를 위해 불법 입국했던 임수경이 부르면서 북한에 대중화됐고 2000년 남북정상 회담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함께 부르바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임.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2016. 8. 2.

■ 北 경제감찰에 돈주들 몰락하고 주민 탈북 늘어나(연합뉴스)

- 북한 당국의 최근 대대적인 경제감찰이 돈주(신흥 자본가)들의 몰락시키고 그 여파로 북한 주민의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검열(경제감찰)로 인한 중산층(돈주들)의 몰락은 장마당 경기를 위축시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그 결과는 북한 내부 주민들과 해외에 파견된 간부들, 근로자들의 탈북 의지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지난 5월 말 국가안전보위부가 ‘109상무(합동검열그룹)’를 앞세워 불법 영상물과 불법도서 검열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시작했다”며 “이에 질세라 6월 초부터 검찰과 인민보안성이 전국적 규모에서 ‘경제감찰’을 시작했다”고 밝힘.

라. 사회 동향

2016. 7. 31.

■ 북한 학생들 국영수 주요과목 남한보다 공부 더 많이한다(연합뉴스)

- 북한 초·중등교육의 국어·영어·수학 등 핵심과목의 수업 시간이 한국보다 더 길다는 분석이 나온다.
- 우리나라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융합을 강조한 것처럼 북한도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교육을 강조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쪽으로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진숙 연구위원은 28일 북한법연구회에서 발표한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개편 :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총 수업시수와 교과별 시수에서 남한보다 대체로 많은 편이며 국어·영어·수학·과학의 경우 중·고교 단계로 올라갈수록 남한보다 더 많이 배운다”고 밝힘.
-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 체제와 정책의 국제적 이단성이 체제 홍보와 유지를 위해 교육에 투영되고 있다”며 “북한에서 주민들이 어릴 때 교육과정의 정치 도구화로 인해 잘못 배운 교육의 결과가 평생 그들의 의식과 삶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통일을 대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함.
- 아울러 “북한의 새 교육과정이 실제로 초중등학생에게 어느 정도로 실행되는지, 12년제 의무교육이 모든 학생에게 구현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북한 정부의 공식문서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조사의 한계성도 지적함.

2016. 8. 1.

■ 北 해외파견 요원들, 삼성·LG 스마트폰 몰래 사용(연합뉴스)

- 북한에서 해외 근로자들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파견된 간부들과 보위부 요원들이 삼성·LG 스마트폰을 몰래 구매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1일 보도함.
- 중국의 한 대북소식통은 데일리NK에 “해외에 파견된 북한 간부들과 보위부 요원들이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핸드폰 사용 금지 명령으로 내렸지만, 본인들은 외부에 나와 삼성·LG 휴대폰을 몰래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함.
- 이어 소식통은 “이들이 삼성·LG 스마트폰 구매의 목적은 인터넷을 통해 북한 체제의 전망에 대한 외부 세계의 평가를 유심히 따져보기 위한 것”이라며 “아무리 작은 뉴스라도 북한 내부 소식에 대해서는 일부러 찾아서 보고 있다”고 말함.

2016. 8. 2.

■ **북한군, 보급난에 범죄 기승...주민 피해 심각(연합뉴스)**

- 북한군에 대한 식량 보급이 악화하자 굶주린 군인들이 온갖 범죄를 저질러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2일 보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달 31일 RFA에 청진시 청암구역 문화2동에 소재한 45사단 주변 지역 주민들이 굶주린 군인들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45사단은 주요 전략부대임에도 병사들의 식사로 통옥수수를 삶아 먹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 함경북도의 다른 소식통은 “군인들의 강탈 행위로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잇따르자 인민반에서는 군인들을 접촉하지 말고 피하라는 중앙의 지시문을 전달했다”고 말함.

■ **평양도 무더위에 맥줏집 ‘복직’...경흥관맥주집 초만원(연합뉴스)**

-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로 평양 보통강 구역 경흥거리에 있는 ‘경흥관 맥주집’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고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이 2일 보도함.
- 매체는 ‘경흥관맥주집의 이채로운 풍경’이라는 글에서 “무더운 여름철인 지금 공화국에서는 곳곳에 꾸러진 맥주집들에서 사람들이 거품이 하얗게 이는 맥주를 시원하게 마시며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것이 하나의 풍경으로 되고있다”고 전함.
- 북한은 1990년대 노후한 공장설비로 탄산이 없는 맥주가 주를 이루면서 맥주보다는 소주의 인기가 높았으나, 2000년대 들어 최신설비를 갖추고 탄산이 든 ‘가스맥주’를 생산하면서 맥주가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함.

2016. 8. 3.

■ **北 간부·부자들 사이 한국 소주 참이슬 인기(연합뉴스)**

- 북한 간부들과 돈주(신흥부유층)들이 북한산 ‘평양술’보다는 한국산 소주 ‘참이슬’을 좋아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3일 보도함.
- 평안북도 소식통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최근 중간급 간부와 돈주들 사이에 한국산 ‘참이슬’이 희귀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기념파티나 선물용으로 쓰이고 있다”며 “이는 참이슬이 도수가 약해 간에 지장이 없는 술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함.

- 소식통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결혼식을 비롯한 일반 대사에는 개성인삼술이나 평양술, 대평술과 같은 국내산 술이 오르지만, 가까운 친구 생일파티에는 참이슬이 올라 저마다 맛을 보려고 한다”고 말함. 그러면서 “한국 제품은 국경세관에서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몰래 감추어 밀반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 사이에 남조선(한국) 제품은 선진적이고 문명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임.

2016. 8. 5.

■ 北 평성·순천서 한국 공중파 수신…특권층 몰래 시청(연합뉴스)

- 북한 평안남도 평성과 순천 일대에서 우리 공중파 TV의 전파가 수신돼 북한의 일부 특권층이 남몰래 시청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5일 보도함.
- 중국을 방문 중인 평안남도 거주 여성은 RFA에 “한국에서 송출하는 TV 공중파 신호가 (평양 인근의) 평성·순천 일대에서 잡히고 있다”면서 “한국 TV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간부며, 이들은 외부에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고 밝힘.
- 평안남도 출신 탈북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에서 밀수로 중고 텔레비전이 적지 않게 북한에 들어왔는데 (북한과 남한의 텔레비전 송수신 방식인) PAL과 NTSC 방식을 겸용한 TV가 적지 않아 한국 TV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함.

■ 북한도 무더위에 물놀이장·야외수영장 ‘인산인해’(연합뉴스)

- 북한에서 최근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물놀이장과 야외수영장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음.
-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4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폭염 속 무더위를 식히려려 평양 문수물놀이장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장면을 방영함.
- 앞서 중앙TV는 지난달 31일 “삼복의 무더위가 지속되는 요즘 당의 은정속에 종합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문수물놀이장으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고 보도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8. 1.

■ **美, 핵폭격기 'B-1B' 이달 초 괌 배치...대북 군사적 압박(연합뉴스)**

- 미 공군이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Lancer)를 이달 초 괌 기지에 전진 배치함.
- 1일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 공군은 오는 6일 미 사우스다코타주 엘스워스 공군기지에 있던 B-1B 몇 대를 약 300명의 운용 병력과 함께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할 예정임.
- 미 공군이 본토에 있던 B-1B를 괌에 전진 배치하는 것은 북한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임. 미 공군은 2005년 11월 괌에 배치된 B-1B를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했고 북한은 이를 '핵선제타격 연습'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음.

■ **北 "美, 세계 비핵화 원한다면 대북 정책 바꿔야"(연합뉴스)**

- 북한은 1일 미국을 향해 '세계 비핵화를 원한다면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촉구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은 변화된 현실을 바로 보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진실로 미국의 운명을 걱정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바란다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를 골간으로 하는 대조선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밝힘.
- 논평은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의 도수를 높일수록 미국에 대한 우리의 핵위협도 강도 높게 가해질 것"이라며 "미국이 핵전략 자산들을 들이밀며 위협을 극대화할수록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핵억제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할 뿐"이라고 위협함.

■ **北, 미군 주피터프로젝트는 세균전 준비 책동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1일 주한 미군이 부산에서 추진하는 생화학전 대비 프로그램인 '주피터프로젝트'에 대해 "세균전 준비 책동"이라고 주장함.
- 북한 인민군 관문점대표부는 이날 담화에서 "미제 침략군이 추구하고 있는 '주피터 계획'은 대조선 침략 전쟁 때 생화학전을 벌리려는 흉계에 따른 것"이라고 말함.
- 담화는 또 "우리 군대는 미제가 원하는 모든 형태의 전쟁 방식에 다 대응해줄 수 있는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 민족을 세균전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날강도 미제의 흉악무도한 책동은 준엄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함.

2016. 8. 2.

■ **北외교관, 뉴욕채널 차단 해놓고 “통로 없어 위험한 상황”(연합뉴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명단에 올린 미국의 대북 인권제재 이후 북미 간 ‘뉴욕채널’ 차단을 발표했던 북한의 한 외교관이 “이제는 통로가 완전히 차단돼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함.
- ‘뉴욕채널’의 북한 측 창구를 담당해온 북측 관리는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그동안(뉴욕채널 차단 이전)에는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국과장과 연락을 주고 받아왔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VOA가 2일 전함.
- 이 관리는 뉴욕채널 차단에 대해 “너절한 인권제재 등에 대해선 추호도 용서 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아예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미국이 사죄하고 (제재를) 철회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라고 주장함.

2016. 8. 4.

■ **美정부-의회, 北미사일 규탄...가드너, 추가 군사옵션 모색해야(연합뉴스)**

- 미국 정부와 의회가 3일(현지시간)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섬. 국제사회와 협력해 추가제재 등 대북압박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구를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국제사회가 단합할 때 북한의 도발 행위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은 더욱 강해진다”고 말함.
- 마크 토너 국무부 수석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 행위와 최근의 다른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명백하게 탄도 미사일 기술의 이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힘.
-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도 별도 성명을 내고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과 더불어 역내 우리 동맹을 계속 위협하려는 북한의 투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함.

■ **백악관, 대북 추가제재 압박 강화...중-러와도 긴밀 협력(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추가제재를 모색하는 등 대북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함.

-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구를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국제사회가 단합할 때 북한의 도발 행위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은 더욱 강해진다”고 말함.
- 미국 전략사령부도 성명에서 “2발이 발사된 것을 탐지했다”면서 “1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고 나머지 1발은 북한을 넘어 동해상으로 낙하했다”고 확인함.

나. 북·중 관계

2016. 7. 31.

■ 정전협정 체결일 맞아 中 군부 축하단 북한 방문(연합뉴스)

- 북한이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을 맞아 중국의 군사·안보 분야 관계자들로 축하단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31일 “신뢰할 만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7일 중국 군부·안전국·공안국 관계자들로 구성된 ‘전승절 축하단’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힘.
- 정 실장은 “축하단 규모와 방문 일정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정서적으로 가까워진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함.

2016. 8. 3.

■ 中언론, 北미사일 발사 비난 동시에 “사드배치 항의”로 해석(연합뉴스)

- 중국 언론매체들은 3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와의 연계성을 제기함.
- 관영 신화통신은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가 유엔(UN) 결의에 대한 새로운 위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
- 신화통신은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지역 안보가 위중한 가운데 더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행위가 한국과 미국 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이뤄진 뒤 세 번째라는 점에서 사드 배치에 항의하는 행위로 쉽게 해석될 수 있다고 전함.

2016. 8. 4.

■ **중국, 北미사일 발사 비난 없이 “모든 당사자 진정해야”(연합뉴스)**

- 중국은 지난 3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모든 당사자가 긴장 유발을 삼가야 한다고 촉구함.
-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기보다 중국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논쟁 중인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의 자제를 촉구하는데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임.
-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4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질의에 “현재 상황 속에서 모든 당사자는 이 지역의 긴장을 높이거나 서로를 도발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밝힘. 이날 답변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비난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음.

2016. 8. 5.

■ **中, 매체에 北지도자 조롱 누리꾼 통제강화 지시(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인터넷에서 북한과 북한 지도자를 조롱, 비판하는 메시지를 통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옴.
- 명보(明報)는 중국의 이데올로기 주무 부처가 최근 중국 누리꾼이 인터넷에서 북한과 북한 지도자를 자주 조롱하고 패러디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고 매체에 지시했다고 5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이번 조치는 한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동의한 데 대해 중국의 강한 불만과 실망을 반영한 조치로 여겨진다고 명보는 전함.

다. 북·일 관계

2016. 8. 3.

■ **日 아베, 北미사일 발사 정보수집·경계태세 만전 기하라(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관계 각료에게 지시했음.
- 아베 총리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은 뒤 “정보 수집과 분석에 전력을 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위대에 대해 정보 수집 및 경계감시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함.

■ **北미사일 한미일 동맹 견제했다…日, EEZ 파편 회수해 분석예정(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3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발사 탄도미사일의 파편을 회수해 분석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미사일은 ‘노동’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낙하 추정 해역에 선박 등을 파견해 파편 회수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이어 “이번 발사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 위반하는 것인 만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즉각 중국 베이징의 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한 표현으로 규탄했다”고 말함.

2016. 8. 5.

■ **일본, 북한 미사일·남중국해 갈등 계기로 방공망 확충 본격화(연합뉴스)**

- 북한의 잇따른 탄도 미사일 시험에 대한 우려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일본의 방공망 확충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음.
-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DW), 스푸티니크 등 외신은 미 국방부가 일본에 인도할 최신예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즈’(Advanced Hawkeyes) 조기경보기 2호기를 항공 군수업체 노스롭 그루먼에 최근 발주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 6월 1일 자로 일본에 대한 17억 달러 규모의 E-2D기 4대 판매를 승인함. 대외군사판매(FMS)를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와 관련,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이번 판매계약에는 E-2D 조기경보기 외에도 엔진 10기, APY-9 UHF 밴드 레이더 4기 등이 포함된다고 밝힘.

라. 북·러 관계

2016. 8. 4.

■ **러 외교부, 내달 극동 동방경제포럼에 北 대표단도 참석(연합뉴스)**

- 다음 달 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북한

- 대표단도 참석할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가 4일(현지시각) 밝혔다.
- 이 관계자는 인테르팍스 통신의 질의에 이같이 확인하면서 “다만 아직 대표단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함.
 - 모스크바 현지 외교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한 상황이라 북한이 블라디보스토크 포럼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장관급 이하 실무진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2016. 8. 5.

■ 北, 러시아에 원산-블라디보스토크 여객선 취항 제안(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는 북한이 러시아에 원산과 블라디보스토크 페리선 취항을 제안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5일 밝힘.
- RFA에 따르면 러시아 언론은 립칭일 북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지난 4일 현지 기업인들을 만나 두 도시 간 정기 화물 여객노선 신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이 자리는 북한 총영사관과 블라디보스토크시 국제관계관광국이 주관한 것으로 알려짐.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7. 31.

■ (단독)싱가포르도 대북제재...10월부터 비자면제국서 북한 제외(연합뉴스)

- 싱가포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 수단으로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싱가포르 이민국(ICA)은 오는 10월 1일부터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북한 주민은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30일 밝힘.
- 싱가포르 당국이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임.
- 현지 소식통은 “싱가포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관련법에 대한 평가와 갱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고 말함.

2016. 8. 2.

■ **캐나다, 북한 여행회피국으로 재지정(연합뉴스)**

- 캐나다 정부가 지난달 북한을 ‘여행 회피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2일 보도함.
- 캐나다 외교부는 지난달 14일 갱신된 여행경보를 통해 북한을 여행 회피국(Avoid all travel)으로 재지정하고, 북한 방문에 ‘극도의 위험’(extreme risk)이 따른다고 경고함.
- 캐나다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억압적인 정권 탓에 여행객들의 안전이 불확실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고 RFA는 전함.

2016. 8. 3.

■ **대북제재보고서 41개국 제출...2013년보다 23개국 늘어(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들이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함.
-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등에 대한 조치로 지난 3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5개월이 지난 이달 2일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총 41개국으로 확인돼, 2013년 같은 기간 집계된 18개국보다 23개국이 늘어났다고 방송은 전함.
-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VOA와 통화에서 “북한이 핵에 대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커졌고, 이 때문에 2270호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호응도 역시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함.

■ **파워 유엔 주재 美대사, 안보리 긴급회의 요청할 것(연합뉴스)**

- 북한이 3일(현지시간)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힘.
-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과 일본이 이날 중 안보리 긴급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말함.
- 파워 대사는 “우리는 오늘 오후 늦게 일본과 함께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2016. 8. 4.

■ **北, 파리기후협정 가입…유엔에 가입문건 제출(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일 기후 변화에 관한 협정인 '파리협정'에 가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음.
- 통신은 이날 “협정 가입문건이 수탁자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었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지구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앞서 지난 4월 당시 북한 외무상이었던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협정에 서명한 바 있어 이번 보도는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는 의미로 풀이됨.

■ **안보리 北미사일 발사 긴급회의…한·미·일 강력 규탄(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3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함.
- 미국, 일본, 한국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4일 오전 5시)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는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비난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짐.
- 안보리가 발사 하루 만에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북한 미사일의 일본의 EEZ 낙하를 위중한 국면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 **유럽 각국, 北 미사일 발사에 “국제적 의무 명백한 위반”(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3일(현지 시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모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 독일 정부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북한 대사를 초치하기로 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함.
- EU 집행위 산하 대외관계청(EEAS)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은 “수차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북한의 국제적 의무를 또 한 번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함.

■ **반기문 “北 진지한 대화로 복귀해야”…안보리 긴급회의(연합뉴스)**

- 북한이 3일(현지시간)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일(미국 현지시간)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함.

- 안보리는 미국과 일본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4일 오전 5시)부터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유엔 관계자가 말함.
- 북한이 발사했던 미사일 가운데 이번 미사일은 처음으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함.

■ 방글라데시 北대사관, 삼성TV·에어컨까지 밀수하다 적발(연합뉴스)

- 방글라데시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삼성전자 TV·에어컨과 담배 수만 갑을 밀수하다 현지 세관에 적발됨.
- 4일 방글라데시 일간 ‘프라티딘’과 현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세관 조사정보국(CIID) 당국은 북한 대사관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들여온 컨테이너 하나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2일 정밀 검색함.
- 지난해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북한 외교관이 모잠비크에서 코뿔소 뿔을 밀거래하다 적발돼 추방되기도 함.

2016. 8. 5.

■ <올림픽> 반기문, 리우에서 최룡해와 개별 접촉 계획 없다(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방문 기간에 북한 인사들과 별도 접촉을 하지 않기로 함.
- 반 총장은 5일(이하 한국시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선수촌을 방문함.
- 그는 이 자리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북한 측 인사와 만찬 중에 조우할지는 모르겠는데 따로 만날 약속은 없다”고 말함.

■ 몰타, 북한 비자 규제 공식 확인...현금 유입 막고 인권보호 목적(미국의소리)

- 몰타 외무부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함. 에티오피아 출신 몰타 외교부 대변인은 4일 ‘VOA’에 해당 조치를 취한 것이 맞다고 밝힘.
- 이어 그런 조치가 북한 정권으로의 현금 유입을 막고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냐는 ‘VOA’의 질문에, “그런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함.
- 앞서 조지 윌리엄 벨라 몰타 외교장관은 지난달 29일 몰타를 방문한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에게 “몰타 정부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연장을 최근 중단한 것에 더해 신규 비자 허가도 더 이상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짐.

- 에티오피아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인권 유린 문제와 관련해 “모든 핵, 미사일 개발과 인권 유린은 규탄돼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힘.

■ 교도, 北상주 유엔기구들 대북금융제재로 업무 곤란(연합뉴스)

- 북한에 상주하는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기구들의 사무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대북 금융 제재로 은행 송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함.
- WFP와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기금(UNFPA) 등은 대북 금융제재 발동 후 현금을 직접 가져가는 방식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직원의 급여도 지불할 수 없어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교도는 전함.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예외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는 전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8. 1.

■ 北, 사이버테러 위협 수준은...안보 차원 공격에 금전취득까지(연합뉴스)

-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안보 차원의 공격은 물론, 금전적 이득을 염두에 둔 공격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나 이번 달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맞서 또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갈등으로 복잡해진 동북아 정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앞으로 대남 사이버 도발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돼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이 테러 시나리오 가운데 증거를 남기지 않고 후유증이 덜한 사이버테러를 선호하는 추세”라면서 “이번 달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북한이 공격 수위를 조절해가며 전방위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함.
- 김홍광 NK 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이 앞으로 사이버 부대를 중심으로 심리전 전개와 함께 자료 분석을 통한 공격목표 설정 등 다양한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이 같은 사이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2016. 8. 2.

■ **日 “北, 핵탄두 중량 1t으로 줄이면 美본토 사정권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핵탄두를 1t 이하로 소형화하는데 성공할 경우 그것을 미국 본토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의 2016년판 방위백서가 지적함.
-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된 백서는 북한이 지난 2월 7일 ‘인공위성’이라며 발사한 탄도 미사일에 대해 “이제까지의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상황이나 이번 북한이 공표한 탄도 미사일의 외관, 이번 비행 상태를 감안하면 이번 발사에는 지난번 발사 때 사용된 것과 같은 사양의 대포동 2 파생형인 3단식 탄도미사일이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함.
- 백서는 “만약 북한이 이런 탄도미사일의 장사정화를 더욱 진전시키고 동시에 소형화 등을 실현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인식을 일방적으로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2016. 8. 3.

■ **日방위상, 北미사일 사상 처음 日 EEZ에 낙하한 듯…1천km 날아(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3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구역(EEZ)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약 1천km를 비행해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반도 서쪽 250km 지점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 등으로 미뤄볼 때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 **美전략사령부, 북 미사일 2발 탐지…1발은 발사 직후 폭발(연합뉴스)**

- 미국 전략사령부는 3일(한국시간)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2발이 발사된 것을 탐지했다”고 밝힘.
- 미 전략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1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으며 나머지 1발은 “북한을 넘어 동해상으로 낙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함.
- 발사 소속이 전해지자 미국 국무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판함.

■ **러 전문가 “北, 노동미사일 탑재 핵탄두 아직 개발 못 해”(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고 러시아 군사전문가가 3일(현지시간) 관측함.
-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에서 근무한 바 있는 예비역 대령 미하일 호다르스늑은 자국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날 이루어진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 이같이 추정함.
- 북한은 이날 오전 황해남도 은율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나 1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으며 다른 1발은 1천km가량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한 것으로 분석됨.

2016. 8. 4.

■ **북한, 더 많은 위성 발사할 것...10년 내에 달 탐사도(연합뉴스)**

- 북한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더 많은 위성을 궤도 내에 진입시킬 예정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달 탐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함.
- 4일 AP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NADA) 과학개발부장은 지난달 28일 평양에서 AP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한 추동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 우주개발을 막으려고 해도 우리 우주개발자들은 반드시 우주를 점령할 것이고 기어이 달에 깃발을 꽂을 것”이라고 말함.
- 한편 북한 미사일 및 로켓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는 AP에 달 궤도 접근 비행이나 달 충돌 착륙보다는 적도상공에 정지궤도 위성을 올리는 것이 북한에 있어 더 야심찬 목표가 될지 모른다고 지적함.

Ⅱ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7.31	정호섭 해군총장 방미...北도발 대비 한미 해상방위태세 강화(연합뉴스)	
	8.2		브룩스 사령관 "한국인, 사드 레이더 위험 겪지 않도록 할 것"(연합뉴스)
	8.4		美태평양사령부, F-16 전투기 12대 오산 기지에 배치(연합뉴스)
	8.5	정호섭 해군총장, 남중국해 불안정 대응 한미 해군협력 중요(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7.30		中 독자 미사일방어체계 개발 확인...사드 배치 겨냥(연합뉴스)
	7.31		중국, 사드 '반대' 압박...기관지에 한국인 기고문 게재(연합뉴스)
	8.1		中, 연일 과도한 '사드' 때리기...인민일보 "한국, 정신 차려야"(연합뉴스)
	8.2		中 관영매체, 사드 때리기 계속...후과, 매우 엄중할 것(연합뉴스)
	8.3		中인민일보, 차대통령 실명비판까지...연일 사드 때리기(연합뉴스)
	8.4		中 사드 맹공...한류 스타 희생양 돼도 중국 책임 없어(연합뉴스)
한일 관계	8.1		中언론 사드 비판 여론몰이 점점 고수 위...차대통령 발언도 주목(연합뉴스)
			사드 보복?...中, 한국 한류문화행사 잇따라 취소(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8.1		아베측근, 소녀상은 '위안부 인식오류' 상징...철거해야(연합뉴스)

	8.2	정부, 주한日대사관 총괄공사대리 불러 방위백서 강력항의(연합뉴스)	일본 방위백서, 12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연합뉴스)
	8.4	한일·한미 6자수석, 北노동미사일 대응 연쇄 전화협의(연합뉴스)	
	8.5	한일, 9일 서울서 국장급협의...위안부재단 출연금 논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8.3	朴대통령, 내달 2~3일 러시아 방문...푸틴과 정상회담(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8.4	중·미, 첫 '법치대화'...공정한 시장환경조성 노력(연합뉴스)	
	8.5	美NASA, 中 위성개발자와 이례적 회동...우주협력관계 해빙되나(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7.31	러시아 '美 민주당 해킹' 입증돼도 골치...美 보복할까(연합뉴스)	
	8.5	유엔 차기 사무총장 놓고 마·러 격돌하나...대리전 양상(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8.1	中, 건군절에 동중국해서 대규모 실탄훈련 "日 겨냥한 듯"(연합뉴스)	
	8.5	日외무상 필리핀 방문...남중국해 분쟁서 中견제 공조(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8.1	러일 이달 하순 차관급 협의...북방영토 문제 논의(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7. 31.

■ 정호섭 해군총장 방미…北도발 대비 한미 해상방위태세 강화(연합뉴스)

-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이 한미 연합 해상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31일 미국 방문 길에 오름.
- 해군은 “정호섭 총장이 오늘 미국을 향해 출국해 7박 8일의 일정으로 한미 해군 고위급 군사외교를 한다”고 밝힘.
- 방미 기간 정 총장은 레이 메이버스 해군장관, 존 리처드슨 해군참모총장, 스콧 스위프트 태평양함대사령관 등 미 해군 수뇌부를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2016. 8. 2.

■ 브룩스 사령관 “한국인, 사드 레이더 위협 겪지 않도록 할 것”(연합뉴스)

-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일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사드 레이더를 포함한 위협에 한국 국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열린 국방포럼에서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사드의 (한반도) 전개 결정은 아주 좋은 결정”이라며 “사드 체계는 지역방어(area defense)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고고도에서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브룩스 사령관은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제 장병들이 절대로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고, 제 장병들이 보호해야 하는 다른 이들 (한국 국민)도 (레이더 전자파의)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사실이 주민들에게 전파돼 이 중요한 방어체계가 순조롭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6. 8. 4.

■ **美태평양사령부, F-16 전투기 12대 오산기지에 배치(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미 공군의 주력 기종인 F-16 전투기 12대를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함.
- 미군 태평양사령부 예하 태평양공군사령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F-16 전투기 12대와 운용병력 300여 명의 오산기지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힘.
- 이번 배치로 그동안 오산기지에 있던 기존의 미네소타 주 주방위군 소속 F-16 전투기 전력은 미 본토로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짐.

2016. 8. 5.

■ **정호섭 해군총장, 남중국해 불안정 대응 한미 해군협력 중요(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 중인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이 남중국해에서 한미 양국 해군이 협력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짐.
- 5일 미 태평양사령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정 총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존 리처드슨 미 해군참모총장을 만나 “북한의 위협과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에 대응할 수 있는 해군 대 해군 차원의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힘.
- 정 총장은 지난달 31일부터 7박 8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임. 정 총장은 리처드슨 총장 외에도 레이 메이버스 해군장관과 스콧 스위프트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비롯한 미 해군 수뇌부를 두루 만나며 고위급 군사외교를 하고 있음.

나. 한·중 관계

2016. 7. 30.

■ **中 독자 미사일방어체계 개발 확인…사드 배치 겨냥(연합뉴스)**

- 중국군이 최근 잇따라 독자 개발 중인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관영 방송매체를 통해 공개한데 이어 공식적으로 MD 발사체계의 구축을 확인함.
- 30일 중화망에 따르면 양위권(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월레브리핑에서 미사일 요격실험 성공장면을 공개한 것과 관련, “적절한 미사일 방어체계 능력을 발전시켜 국가안보를 수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양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의 국방능력 향상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국제적인 전략 환경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2016. 7. 31.

■ **중국, 사드 '반대' 압박...기관지에 한국인 기고문 게재(연합뉴스)**

-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인들의 의견을 기관지 논단에 연달아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음.
-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인들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중국이 반대 인사들의 의견만 비중 있게 지속해서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 인민일보는 지난 25일 '국제논단' 면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김충환 전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의 기고문을 크게 실은 데 이어 31일에는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글을 크게 실음.
- 한편, 중국 CCTV는 거의 매일 사드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 등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고 있으며, 환구시보 등도 연일 1면에 한국의 사드 반대 동향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사드 불가' 여론을 조성하고 있음.

2016. 8. 1.

■ **中, 연일 과도한 '사드' 때리기...인민일보 “한국, 정신 차려야”(연합뉴스)**

- 중국이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을 동원해 연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중국은 한국 지도부를 향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에 보복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음.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1일 사실격인 '종성'(鐘聲)을 통해 “한국이 사드 배치에 동의한 것은 미국의 앞잡이를 주도적으로 자처하고 한반도를 새로운 모순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본국의 장기적 이익과 민중의 이익에서 출발해 기본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현실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2016. 8. 2.

■ **中 관영매체, 사드 때리기 계속...후과, 매우 엄중할 것(연합뉴스)**

- 중국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몰이 작업을 계속함.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은 2일 쑤샤오후이(蘇曉暉)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의 칼럼을 통해 “사드 배치의 후과(後果·나쁜 결과)는 매우 엄중할 것”이라고 경고함.
- 중국 관영 매체들은 최근 사드에 반대하는 자국 전문가는 물론 한국인의 칼럼을 게재하고 사설 등을 통해 연일 ‘사드 불가’ 여론을 조성하는데 몰두하고 있음.

2016. 8. 3.

■ **中인민일보, 차대통령 실명비판까지...연일 사드 때리기(연합뉴스)**

- 중국 관영 매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음.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3일 사설 격인 ‘중성’(鐘聲)을 통해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 안보에 심각한 현실적 위협을 조성한다”며 “중국은 이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 중국 관영 매체들은 최근 사드에 반대하는 한국인의 칼럼을 게재하고 사드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 등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는 등 연일 ‘사드 불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음.

2016. 8. 4.

■ **中 사드 맹공...한류 스타 희생양 돼도 중국 책임 없어(연합뉴스)**

- 중국이 관영 매체들을 총동원해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음.
- 사드 문제에 따른 한중 우호 관계 훼손으로 한류 스타가 희생양이 되더라도 중국은 책임이 없다는 논평까지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여론 조사와 괴담을 통해서 ‘한류(韓流)’를 ‘한류(寒流)’로 만들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음.
- 베이징 소식통은 “광전총국이 공식으로 발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 인터넷상에 온갖 괴담이 떠돌고 있어 현혹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함.

2016. 8. 5.

■ **中언론 사드 비판 여론몰이 점점 고수위...차대통령 발언도 주목(연합뉴스)**

- 중국이 관영 매체들을 대거 동원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몰이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음.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와 인민일보 해외판은 5일에도 사드를 비판하는 사실과 기사를 비중 있게 게재하며 사드 때리기를 계속함.
- 인민일보는 이날 사실 격인 종성(鐘聲)을 통해 한국 정부와 당국자들을 향해 “안전(안보) 문제에서 이처럼 경박하게 언행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을 가함.

■ 사드 보복?…中, 한국 한류문화행사 잇따라 취소(연합뉴스)

-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에 반발하면서 한국에서 진행하려던 각종 한류 콘텐츠 행사를 잇달아 취소하고 있음.
- 5일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시 불산여유국은 이달 말께 부산과 제주에서 촬영하려던 ‘주강홍보대사경선’ 프로그램을 취소한다고 최근 통보해옴.
-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중간 긴장상태가 심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한류콘텐츠 분야 교류에 이어 민간 차원의 관광 프로그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상황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있음.

다. 한·일 관계

2016. 8. 1.

■ 아베측근, 소녀상은 ‘위안부 인식오류’ 상징…철거해야(연합뉴스)

- 한일 군위안부 합의가 본격 이행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촉구함.
- 1일자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이나다 정조회장은 전날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앞으로도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계속 요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소녀상은 ‘(구 일본군이) 20만 명의 젊은 여성을 강제 연행해 성노예로 삼았다’는 잘못된 인식의 상징”이라며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일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함.
- 이나다는 이어 “양국이 합의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소녀상 철거는 그 중 중요한 요소”라고 밝힌 뒤 “한국이 (소녀상 이전을) 확실히 진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함.

2016. 8. 2.

■ **일본 방위백서, 12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음.
-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 일본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김.
- 그 뿐 아니라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음.

■ **정부, 주한대사관 총괄공사대리 불러 방위백서 강력항의(연합뉴스)**

- 정부는 2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은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공식 항의했음.
- 외교부 배종인 동북아국 심의관은 동북아국장 대리 자격으로 이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의 마루야마 코헤이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했음.
- 배 심의관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마루야마 총괄공사대리에게 강력히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2016년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전문】

1. 정부는 일본 정부가 8.2(화) 2016년 방위백서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
2.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의 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면서 한일관계가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국방부, '16년 방위백서」 독도 기술 관련 항의문 전문】

-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또한,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대한민국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다.

2016. 8. 2.

2016. 8. 4.

■ **한일·한미 6자수석, 北노동미사일 대응 연쇄 전화협의(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4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전날 노동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응방안을 협의했음.
-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전화협의를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힘.
- 김 본부장과 가나스기 국장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자 국제평화·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수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함.

2016. 8. 5.

■ **한일, 9일 서울서 국장급협의…위안부재단 출연금 논의(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오는 9일 외교부 국장급간 협의를 열어 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출범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함.

- 양국은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 간의 협의를 9일 서울에서 개최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함.
-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난 달 말 공식 발족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에 일본 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10억 엔(약 110억 원)의 제공 시기, 재단의 사업 내용 등과 관련한 막판 조율을 진행함.

라. 한·러 관계

2016. 8. 3.

■ 차대통령, 내달 2~3일 러시아 방문…푸틴과 정상회담(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내달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3일 밝힘.
-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정부 주관으로 극동지역의 투자 유치 및 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연례 개최되는 포럼임.
- 청와대는 “양국 간 다양한 현안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8. 4.

■ 중·미, 첫 ‘법치대화’…공정한 시장환경조성 노력(연합뉴스)

- 중국과 미국이 처음으로 ‘법치대화’ 형식으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기제를 가동해 주목됨.
-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가 발행하는 중국장안(長安)망은 4일 멩젠주(孟建柱) 정법위 서기가 3일 베이징에서 ‘중미 법치대화’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과 만났다고 보도함.
- 양국 간 법치대화는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이 외교, 경제 다방면을 논의하는 ‘전략대화’에서 다루지 못한 법적인 부분을 별도로 취급하는 통로로 보임. 하지만 중국의 시장 환경이 비관세장벽 등 법 이외 부문에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법치대화가 공정한 시장 환경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2016. 8. 5.

■ **美NASA, 中 위성개발자와 이례적 회동…우주협력관계 해빙되나(연합뉴스)**

- 미국 우주항공국(NASA) 관계자들이 이례적으로 중국의 위성 개발자들과 회동해 오랫동안 경색됐던 양국의 우주 협력 관계가 해빙될지 주목됨.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NASA의 크리스토퍼 블랙커비 환태평양 대표와 마이클 프라이리히 지구과학부 책임자,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이 지난달 1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는 중국과학원 대기물리연구소를 방문했다고 5일 보도함.
- NASA와 유럽, 일본의 우주 관련 기관들과 일한 적 있는 쑹추강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 과학자들이 만나기를 원하면 유럽이나 일본 과학자들 초대해 양국의 접촉 금지 정책을 회피할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화성 공동 연구를 통해 경색된 관계를 해빙할 수 있다고 강조함.

나. 미·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미·러 관계

2016. 7. 31.

■ **러시아 ‘美 민주당 해킹’ 입증돼도 골치…美 보복할까(연합뉴스)**

- 미국 민주당의 선거조직이 사용하는 컴퓨터망 해킹을 놓고 ‘러시아 배후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보복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해킹이 확인되는 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전함.
- 미국 정부 내 실무진 사이에서는 이번 해킹이 사실일 경우,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과 GRU에 대한 보복공격은 물론 러시아의 관련 인사에 대한 경제·여행제재 등이 제재안으로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이런 방법

의 실효성에는 이미 의문이 제기된 지 오래임.

- 미국은 2014년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사건의 배후를 북한으로 공개 지목하고 일련의 추가 제재를 가했으나 두 가지 모두 실효는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도 미국을 고민스럽게 만드는 대목임.

2016. 8. 5.

■ 유엔 차기 사무총장 놓고 마·러 격돌하나…대리전 양상(연합뉴스)

- 차기 유엔 사무총장을 뽑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비공개 2차 투표가 5일(현지시간) 치러지는 가운데 세계 대통령 자리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옴.
- AFP통신에 따르면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이날 차기 총장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두 번째 비공개 투표를 함.
-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지정학적인 영향력 등을 고려해 여성인 수사나 말코라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을 차기 사무총장으로 밀고 있다고 전함. 반면 러시아는 동유럽 국가 후보들을 지지하는데 특히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불가리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알려짐.

라. 중·일 관계

2016. 8. 1.

■ 中, 건군절에 동중국해서 대규모 실탄훈련 “日 겨냥한 듯”(연합뉴스)

-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건군절(국군의 날)인 1일 동중국해 상에서 군함 100여 척과 전투기 수십 대를 투입한 가운데 실전 수준의 대규모 실탄훈련을 실시함.
- 동중국해는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훈련은 다분히 일본을 겨냥해 무력시위를 한 것이란 해석을 낳고 있음.
- 창완취안(常万全) 중국 국방부장도 전날 건군절 89주년을 기념하는 국방부 초대 회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수한 기풍을 지닌 인민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며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 영토안정. 해양권익을 확고부동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힘.

2016. 8. 5.

■ **日외무상 필리핀 방문...남중국해 분쟁서 中견제 공조(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필리핀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전함.
- 그는 이 기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퍼펙토 야사이 외교장관과 만나 양국 간 안보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임.
- 기시다 외무상은 특히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상설중재 재판소(PCA)의 판결을 중국 측이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필리핀과 공동으로 촉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됨.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2016. 8. 1.

■ **러일 이달 하순 차관급 협의...북방영토 문제 논의(연합뉴스)**

- 러시아와 일본 정부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차관급 협의를 이달 하순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전함.
- 9월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석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그에 앞서 의제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것임.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7.30	러시아, 北 노동자 계속 받아들이겠다(연합뉴스)
	7.31	몰타 총리, 北노동자 인권문제에 단호...해결 노력 최선(연합뉴스)
	8.1	北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중 29%는 연좌제 적용(연합뉴스) [인터뷰] 솔터, 북 엘리트 탈북은 정권 반감 입증(자유아시아방송)
	8.2	킨타나 유엔 특별보고관, 외국의 北노동자 인권도 주요 관심사(연합뉴스) "북한 연좌제, 시대착오적 인권 유린" 인권전문가들(미국의소리)
		홍콩 인권단체들, 한국 총영사관 진입 탈북 학생 거취 우려(미국의소리) 미 인권단체, 유엔에 '북 여성인권 제안서' 제출(자유아시아방송) OHCHR, 고문 피해자 재활기금 지원(자유아시아방송)
	8.3	[심층취재] 미 국무부, 내년 초 북한인권 제재 대상 추가 시사(미국의소리)
	8.4	미 입국 탈북 난민 녀 달째 '전무'(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8.2
북한인권 남한동향	8.1	민변 "北종업원 재판, 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열어 달라"(연합뉴스)
	8.3	탈북 일가족 "간첩 혐의로 불법 감금됐다" 국가상대 소송(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8.1	홍콩언론 "탈북학생, 수학올림피아드 3연속 은메달 수상자인 듯"(연합뉴스)
8.2	올해 들어 탈북민 15.6% 늘어...엘리트층 탈북 급증(연합뉴스) 北, '고현철 체포' 후 中동북지방 방첩인력 일부 철수(연합뉴스)	
	8.2	美 구호단체, 북한 내 29개 시설에 영양쌀 지원(미국의소리)
대북지원	8.2	WFP, 대북 식량 수송 지원(자유아시아방송)
	8.3	北, 2분기 주민 1인 평균배급량 360g...2011년 이래 최저(연합뉴스)
	8.4	가톨릭 구호단체, 평양서 새 노인 복지 사업 시작(미국의소리)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7. 30.

■ 러시아, 北 노동자 계속 받아들이겠다(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 유입을 규제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달리 이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러시아 내무부 산하 이민국은 북한 노동력 수입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등이 2007년 8월 31일 체결된 임시 노동활동에 관한 양국 간 협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과도한 상납금 요구 등 임금 착취는 물론 열악한 처우와 통제, 감시 등에 시달리면서 인권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음.

2016. 7. 31.

■ 몰타 총리, 北노동자 인권문제에 단호...해결 노력 최선(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탈리아와 지중해 섬나라 몰타를 방문해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썬법을 바꾸기 위한 대북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31일 밝힘.
- 외교부에 따르면 조셉 무스카트 몰타 총리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몰타를 찾은 윤병세 장관에게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인권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함.
- 조지 윌리엄 벨라 몰타 외교장관도 윤 장관과의 회담에서 자국이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2016. 8. 1.

■ 北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중 29%는 연좌제 적용(연합뉴스)

-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중 3분의 1 정도는 연좌제의 적용을 받아 수감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옴.
- 북한인권정보센터가 1일 발간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근무자, 수감자 및 실종자

인명사전'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와 수감 추정자 1천258명의 죄명은 연좌제 365명(29.0%), 한국 탈출시도 132명(10.5%), 말반동(불평불만) 102명(8.1%), 불법월경 72명(5.7%) 순이었음.

- 센터 측은 “최근 국내 입국자 조사결과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기록, 보관 중인 ‘북한인권 통합DB’ 내 정치범수용소 구금사건 3천825건, 실종사건 1천181건의 정보 중 구체적인 인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함.

■ (인터뷰) 솔티, 북 엘리트 탈북은 정권 반감 입증(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장 솔티 대표는 1일 RFA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군 장성과 북한 수학 영재 등 엘리트 계층의 잇따른 탈북 추정 보도를 보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이 한국에 망명했던 1990년 대 중·후반과 매우 흡사한 것 같다고 말함.
- 솔티 대표는 황 전 비서와 최주환 북한군 상좌 등은 당시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믿었지만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 등으로 북한 주민의 노예와 같은 상황이 수 십 년 더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함.
- 솔티 대표는 당시 북한 정권은 식량과 의약품 등 유엔,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엄청난 액수의 지원을 굶주림에 시달리는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 유지에 사용했다고 지적함. 그러나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가 국제사회에 알려진 지금은 1990년대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임.

2016. 8. 2.

■ 키타나 유엔 특별보고관, 외국의 北노동자 인권도 주요 관심사(연합뉴스)

- 토머스 오헤아 키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일(현지시간) 북한 내 주민들뿐 아니라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도 주된 관심사라고 밝힘.
- 지난달 초 임명된 아르헨티나 출신의 키타나 보고관은 이날 크리스틴 정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C) 수석고문과의 첫 인터뷰에서 향후 활동 방향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언급함.
- 이는 유엔 차원에서 외국의 북한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및 개선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됨.

■ **“북한 연좌제, 시대착오적 인권 유린” 인권전문가들(미국의소리)**

-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10명 중 3명이 연좌제를 이유로 수감됐다고 밝힘.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발표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함.
- ‘VOA’가 접촉한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모두 '연좌제'가 불법이라고 지적함. 북한 인권 활동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임. 연좌제는 명백한 불법으로 모든 합리적인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세계인권선언 뿐 아니라 북한이 서명한 여러 인권 관련 조약들도 연좌제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임.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도 연좌제는 분명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당장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함.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VOA’에, 연좌제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고 말함.
- 로버트슨 부국장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신상이 알려짐으로써 북한 당국이 이들을 지금보다 더 가혹하게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함.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과거 처형 위기에 처한 수감자 명단을 외부에서 공개함으로써 이들이 처형을 면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힘.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수감자 뿐 아니라 가해자 이름까지 공개한 것은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함.

■ **홍콩 인권단체들, 한국 총영사관 진입 탈북 학생 거취 우려(미국의소리)**

- 지난달 중순 홍콩주재 한국 영사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 학생 리정열 군은 현재 외국 영토로 간주돼 중국이나 홍콩 당국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사관 내에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안전이 보장돼 있는 상태임.
- 그러나 리 군이 홍콩을 떠나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 사이의 외교적 협상이 필요함. 홍콩의 주권이 1997년 7월 중국에 반환된 뒤 외교와 국방은 중국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임.
- 홍콩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중국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에 협조한 과거의 기록들을 거론하며, 리 군이 여전히 강제복송될 위험에 있다고 밝힘. 중국 내 탈북자들은 언제나 강제복송의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리 군 문제에도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팡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엔난민협약의 서명국인 중국은 리 군이나 다른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영사관 내 탈북자 체류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리 군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 미 인권단체, 유엔에 '북 여성인권 제안서' 제출(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인들이 주축이 된 북한 여성인권 단체 '북한여성실무그룹(The Working Group on North Korean Women)'은 지난 1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소속 여성 지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에 내년 3월에 있을 유엔 회의의 의제로 북한 여성인권 문제를 채택하기를 희망하는 제안서를 제출함.
- 제안서는 북한 내부 여성들의 인권침해 상황과 관련한 4가지와 중국 내 탈북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유린 문제점에 대한 5가지 주제를 담아 총 9개의 안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북한여성실무그룹'의 벤티 카와무라(Betsy Kawamura)와 제이슨 웨스트(Jason West) 공동대표는 이번 제안서 제출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가 북한 여성지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첫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함.

■ OHCHR, 고문 피해자 재활기금 지원(자유아시아방송)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2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가 고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고문피해자재활기금(UN Fund for Victims of Torture)에 시민단체들의 지원 신청을 촉구함.
-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시설에서는 고문 등 온갖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방대한 기록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UN COI) 보고서 발간 후 2년이 넘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더 심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임.
-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달 이 기금의 후원으로 고문피해 탈북자 등을 위한 1박 2일에 걸친 힐링캠프라는 치유 행사를 가짐. 이 단체는 지난 3월 발표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지난 13년 간 5만 2천 700여 건의 북한인권 범죄 중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가

4천 여 건으로 8퍼센트 가까이에 달한다고 지적함.

- 고문기금은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혹은 교육적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기금의 성격에 따라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됨.

2016. 8. 3.

■ [심층취재] 미 국무부, 내년 초 북한인권 제재 대상 추가 시사(미국의소리)

- 북한은 미국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이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북한의 한성렬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지난달 28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조치는 사실상 북한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대북 인권 제재 대상을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함. 미 국무부의 애나 리치-앨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무부가 후속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확인함.
- 리치-앨런 대변인은 또 지금도 계속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정보를 공유해 주기를 권장한다고 밝힘. 그러면서 증거들이 정확하고, 제재 대상 목록이 다양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2016. 8. 4.

■ 미 입국 탈북 난민 6 달째 '전무'(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가 4일 갱신한 난민입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4개월 연속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단 한 명도 없음.
- 따라서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하기로 한 2004년 부터 현재까지 총 197명의 탈북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그침.
- 반면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3만 명에 육박(2만 9천 543)합니다. 남성이 8천 647명, 여성이 2만 896명임. 특히 올 상반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749명을 기록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8. 2.

■ 北출입국사무소 보안검색 강화…‘금덩이 삼켰나’ 알몸수색도(연합뉴스)

- 북·중 국경 지역의 북한 출입국사무소가 보안검색을 이유로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알몸수색과 같은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평양에 거주한 중국 화교소식통은 RFA에 “최근 신의주를 통해 중국 단둥(丹東)으로 넘어갈 때 (보안검색대에) 소지품은 물론 머리핀까지 다 내놓았는데도 금속탐지기에서 경고음이 울려 별실에 가서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재검사를 받는 수모를 겪었다”고 밝힘.
- 이어 소식통은 “보안검색 과정에 수모를 겪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새파랗게 젊은 보안검색 요원들이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을 향해 반말은 보통이고 특하면 욕설도 내뱉는다”면서 북한당국을 비난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8. 1.

■ 민변 “北종업원 재판, 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열어 달라”(연합뉴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탈북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의 ‘인신구제’ 재판을 이들이 수용된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구함.
- 민변은 1일 “종업원들을 직접 심문할 필요성과 이들의 법원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센터 구내 장소를 심문기일 개정 장소로 하는 현장 재판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힘.
- 민변은 지난 6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이 끝난 뒤 재판장인 형사 32단독 이영제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22일 기각됨.

2016. 8. 3.

■ 탈북 일가족 “간첩 혐의로 불법 감금됐다” 국가상대 소송(연합뉴스)

- 탈북한 일가족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간첩 혐의로 불법으로 감금되고 위법한 수사를 받았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비영리 민간단체인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민들레)은 탈북자 지모씨와 지씨의 전처 배모씨, 두 아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총 2억1천8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일 밝힘.
- 각각 2013년 4월과 5월에 탈북한 지씨와 배씨는 마약을 팔아 북한 노동당에 충성자금을 상납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돼 행정조사를 받음.
- 국정원은 지씨와 배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행정조사를 마무리했지만,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과 12월 각각 통일부로부터 ‘비보호 결정’을 받음.
- 지씨와 배씨는 국정원의 행정조사가 사실상 불법적인 수사였고, 이를 근거로 이뤄진 통일부의 비보호 결정도 무효라는 입장임.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8. 1.

■ 홍콩언론 “탈북학생, 수학올림피아드 3연속 은메달 수상자인 듯”(연합뉴스)

- 최근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 학생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에서 3차례 은메달을 수상한 리정열 군(18)인 것으로 보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함.
- 홍콩 언론이 탈북 추정 학생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영사관 내 탈북자 체류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엄격한 출입자 통제를 지속하고 있음.

2016. 8. 2.

■ 올해 들어 탈북민 15.6% 늘어…엘리트층 탈북 급증(연합뉴스)

- 올해 들어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탈북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엘리트층의 탈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2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달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은 815명(잠정치)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6% 증가함.
- 2011년 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민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올해가 처음임. 특히, 최근 북한 내 엘리트층의 탈북이 급증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불안 요소가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탈북민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에

있을 때 생활수준이 중상층 이상이었다는 답변의 비율이 몇 년 전부터 상승하고 있었다”며 “최근에는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나면서 중상층 이상이라는 답변 비율이 더 올라갔다”고 말함.

- 정부 당국자는 최근 탈북 추세와 관련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더 잘 살기 위해 탈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며 “물론 아직도 탈북민의 50%는 경제적 어려움을 탈북의 이유로 꼽고 있지만,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서라는 답변도 20%까지 상승했다”고 말함.
- 최근 탈북민 증가세를 고려할 때 국내 거주 탈북민의 수는 올해 10월 혹은 11월 쯤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北, ‘고현철 체포’ 후 中동북지방 방첩인력 일부 철수(연합뉴스)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탈북자 고현철씨를 ‘고아 납치범’으로 체포한 뒤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했던 방첩인력을 일부 철수시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일 보도함.
- 소식통은 “지난 5월 중순 신의주 인근 압록강변에서 고현철 씨가 체포된 이후 중국 동북지방에서 활동하던 북한 보위부 해외 반탐(방첩의 북한말)조 일부가 복귀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RFA의 소식통은 “고현철 체포 사건도 보위부의 주도 세밀한 작품으로 알려졌다”면서 “고씨가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을 ‘고아 납치범’이라고 실토했 것도 북한의 압력에 따른 진술로 보인다”고 말함.

5. 대북지원

2016. 7. 30.

■ 美 구호단체, 북한 내 29개 시설에 영양쌀 지원(미국의소리)

-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의 환자들을 위해 ‘영양쌀’을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함.
- 미국의 국제 구호단체인 ‘스톱 헝거 나우’(Stop Hunger Now)는 웹사이트에 올린 세계 각국 지원 현황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의 결핵·간염 환자 57만여 명에게 140만 킬로그램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영양쌀을 지원했다고 밝힘.
- ‘스톱 헝거 나우’의 줄리 사베인 식량 지원 담당관은 VOA에 “영양 상태가 좋아야

약도 잘 듣고 병을 빨리 치료할 수 있다”며 “영양쌀이 결핵·간염 환자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함.

2016. 8. 2.

■ WFP, 대북 식량 수송 지연(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이 2일 공개한 ‘대북지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 6월 약 64만 4천 명의 북한 주민에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면서 지원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평했지만, 7월과 8월의 지원은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지난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매달 북한 주민 약 170만 명에 영양 지원을 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북한으로의 구호물자 수송이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함.
- 세계식량계획 관계자는 구호물자 수송 지연의 이유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북한으로 곡물을 수송하는 시간이 예전의 평균 한 달보다 더 길어졌다고 밝힘.

2016. 8. 3.

■ 北, 2분기 주민 1인 평균배급량 360g…2011년 이래 최저(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올해 2분기 주민에게 배급한 식량이 기준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함.
- 세계식량계획(WFP)이 1일 발표한 ‘WFP 북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올해 4~6월 주민 한 명당 하루 평균 360g의 식량을 배급함. 이는 2011년 이후 2분기 평균 식량 배급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임.
- 올해 2분기 배급량은 지난 1~3월 배급량보다 10g 감소했고, 지난해 2분기 평균배급량 410g보다도 50g 줄어든 규모로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유엔 권장량의 62% 수준에 불과함.
- WFP는 지난달부터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등 북한 7개 도와 남포 내 취약계층을 위해 새로운 영양 지원사업을 시작함.

2016. 8. 4.

■ 가톨릭 구호단체, 평양서 새 노인 복지 사업 시작(미국의소리)

- 독일의 가톨릭계 구호단체인 카리타스 독일은 최근 북한에서 노인들을 지원하는

-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힘. 카리타스 독일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서 최근 평양에 노인들을 위한 새 시범 복지시설을 건립했다며 이같이 밝힘.
- 이 시설은 노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의료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카리타스 독일은 설명함. 카리타스 독일이 북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 단체는 또 함경남도과 강원도, 자강도 내 결핵과 간염 환자들을 위해 온실 11채도 새로 짓고 있음. 온실은 태양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결핵과 간염 환자의 회복을 위한 영양보충식으로 제공됨.